



· 목 차 ·

- 2 포커스
8월부터 병원·약국 이용절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 4 의학리포트
신생아 난청과사로 장애인, 저지능아가
되는 것을 막는다
- 5 선인재 칼럼
물보다 質에 우선을 두어야
- 6 진료교실 I
여름철 안질환으로부터
눈을 보호합시다
- 8 AMC NEWS
- 13 진료교실 II
장마후부터 추석연휴까지
별이나 개미에 의한 알레르기 조심하세요
- 14 부서별방 진단방사선과
- 16 의과대학 돌리보기 생화학교실
- 17 잊을 수 없는 환자
기적 같은 모성애로 세상에 나온 아이
- 18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당뇨병 완치의 길을 찾아서
- 19 내가 꿈꾸는 의료인
날아라, 병아리
- 20 건강 Q&A
콘택트렌즈 착용자와 라식수술
여성호르몬제와 유방암
- 22 자원봉사활동
즐거움으로 맞는 목요일 오후
- 23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이번엔 꼭 임신하세요
- 24 자료실 소개
치료방사선과 근접방사선치료
- 25 잘못된 건강상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무좀이 낫는다?
- 26 응급처치, 이럴때 이렇게
항공기 여행을 위한 안전지침
- 27 진료시간표

8월부터 의약분업 전면 실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분업이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됩니다.

8월부터 외래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후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사의 조제를 받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의약분업 시행까지 환자 여러분들께 분의 아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7월10일부터 부분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오고 있어 의약분업 시행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현상은 아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대형약국이 속속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러한 대형약국은 물론 환자분들이 집이나 회사 근처 어느 약국을 이용하건 불편이 없게끔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기사 2면>.



